

문화콘텐츠 Asia No. 1

DSU

- 임권택영화예술대학
- 디자인대학
- 미디어콘텐츠대학

DSU의 힘 ②

새로운 미래 30년을 기대하며

글로벌 동서

세계를 향하는 DSU,
DSU를 향하는 세계

DSU NEWS





Cover Story

우리의 30년은 도전과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성찰, 열정으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30년, 대학교육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는 다시금 도전에 나섭니다. 대학교육의
 미래를 이끌 문화콘텐츠 Asia No. 1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동서대학교의
 새로운 도전을 믿고 응원해주세요.

DSU NEWS

2022 Vol. 381

동서대학교 매거진 <DSU NEWS> 통권 381호

발행인 장제국 발행일 2022년 8월 22일

발행처 동서대학교 종합홍보실

디자인·제작 굿디자인연구소

※ 본 인쇄물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Special Theme
문화콘텐츠 Asia No. 1
DSU

06

특집 1

거장의 숨결과 함께 성장하는 창의적 예술가
 임권택영화예술대학

10

특집 2

The Only One 디자이너를 향한 출발
 디자인대학

14

특집 3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미디어콘텐츠대학



11



14



18



24

20

DSU의 힘 ①

메타기술기반 문화콘텐츠 산학협력 선도모델 LINC 3.0 선정
 미래 문화콘텐츠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다
 - LINC 3.0사업단장 황기현 교수

22

DSU의 힘 ②

동서대학교 30주년 기념행사 프리뷰
 새로운 미래 30년을 기대하며

24

DSU의 힘 ③

교수들이 직접 소개하는 '동서대학교를 빛낸 수상작들'

28

글로벌 동서

세계를 향하는 DSU, DSU를 향하는 세계
 SAP-USA / SAP-Global: UN 프로젝트 / ASP /
 캠퍼스아시아학과 이동캠퍼스



38



44

34

앞서가는 DSU

가상 아이돌을 넘어 가상세계 구축을 꿈꾸다

36

동서인스타그램

우리나라 포물러카이트보드 여제
 동서대학교 출신 첫 국가대표 이영은 동문

38

도전하는 청춘

공모전 수상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다

44

희망을 나누다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차곡차곡 담아 당신에게 전합니다

46

동서대 오늘

장제국 총장 동계 교직원 연수회에서 대학발전 위한
 7대 주요전략 제시 외

문화콘텐츠 Asia No. 1 DSU

우리나라는 BTS, 기생충, 아기상어, 드라마 등을 K-콘텐츠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수출하며, 우리나라의 우수성과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동서대학교 역시, 일찍이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1996년 트라이앵글 특성화 추진을 시작으로 문화콘텐츠 중심 대학의 비전을 실천해 오고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 국내 최고, 세계적 수준의 문화콘텐츠 인재 양성 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그 명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 올해를 기점으로 임권택영화예술대학, 디자인대학, 미디어콘텐츠대학을 문화중심대학으로 재편하여 다시 한번 아시아 최고의 문화콘텐츠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 20대 영화학교
세계적 영화전문 잡지 《Variety》 선정 (2017년)

1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대학
게임, 광고, 미디어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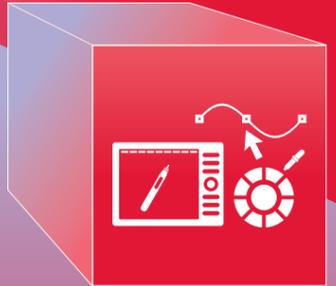


웹툰학과 신설
K-Culture를 만드는 새로운 중심



K-콘텐츠 레드 액션
2022년 부산시, 영화와 영상, 게임 등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K-콘텐츠 레드 액션' 계획 수립 (5년간 4,915억 원 투입)

**CLIO Awards
New York Festival
Red Dot Design Awards**
매해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광고제에서 Winner 배출



문화콘텐츠대학
DSU ①

한국영화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임권택 감독, 그의 예술적 혼과 열정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문화예술 분야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2008년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의 문을 열었다. 이후 2013년 센텀캠퍼스로 자리를 옮겨 영화과를 비롯해 뮤지컬과, 연기과를 하나의 예술대학 아래 묶어 더욱 전문적이고 특수성 있는 예술인재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거장의 숨결과 함께 성장하는 창의적 예술가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과

인재에 실력과 열정이라는 미장센을 담다

영화과는 영화에 대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폭넓고 깊은 교육을 지향한다. 영화를 대하는 태도부터 영화인으로서의 자세까지 임권택이라는 마에스트로의 열정을 그대로 느끼며 창의적 영화인으로서 성장해 나간다.

영화에 대한 이론부터 착상과 시나리오, 기획, 연출, 제작, 촬영, 사운드, 편집 등의 전공수업을 비롯해 마스터 클래스, 졸업생 초청 특강, 각종 영화제작기술 워크숍과 촬영 라이선스 취득 시험 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인재들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뒷받침할 실무 중심 교육과 최첨단 환경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이 위치한 센텀캠퍼스 주변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전당을 비롯해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각종 영상 기관과 맞닿아 있어 학생들의 실습활동이나 학업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역 감독으로 영화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교수진은 그들이 가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의 현장진출을 지원하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매 학기 20여 편 이상의 단편영화와 10여 편에 달하는 장편영화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된다.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들은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되고 상영·개봉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연기과

살아있는 연기로 세상을 놀라게 하다

연기과는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고 융합을 통해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연기자를 양성한다.

창의력이 바탕이 되는 연기자를 양성하기 위해 단계적 교육 커리큘럼을 시행하고 있다. 1학년은 연기 요소 훈련을 비롯한 신체적 행동의 기억, 상황 연기를 통해 연기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고, 2학년이 되면 관찰실습, 역할 구축연기 등을 통해 캐릭터의 다양성을 배워, 다양한 상황에서 연기를 펼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3~4학년 때는 공연 워크숍과 영상 연기 실습, 오디션 실습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영화 및 공연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외 공연 및 미디어 전문가 특강, 세부 직능별 심화 프로그램, 창작극, 전통 연희 등 다양한 동아리 및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기자로서 학생들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함양한다.

졸업생들은 연극 무대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플랫폼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영화, 광고, 웹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에도 진출하고 있다. 이는 연기과가 학교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캐스팅 디렉터, 기획사 등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오디션을 지원하는 등 연극, 영화, 드라마 현장과의 연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성과다.

뮤지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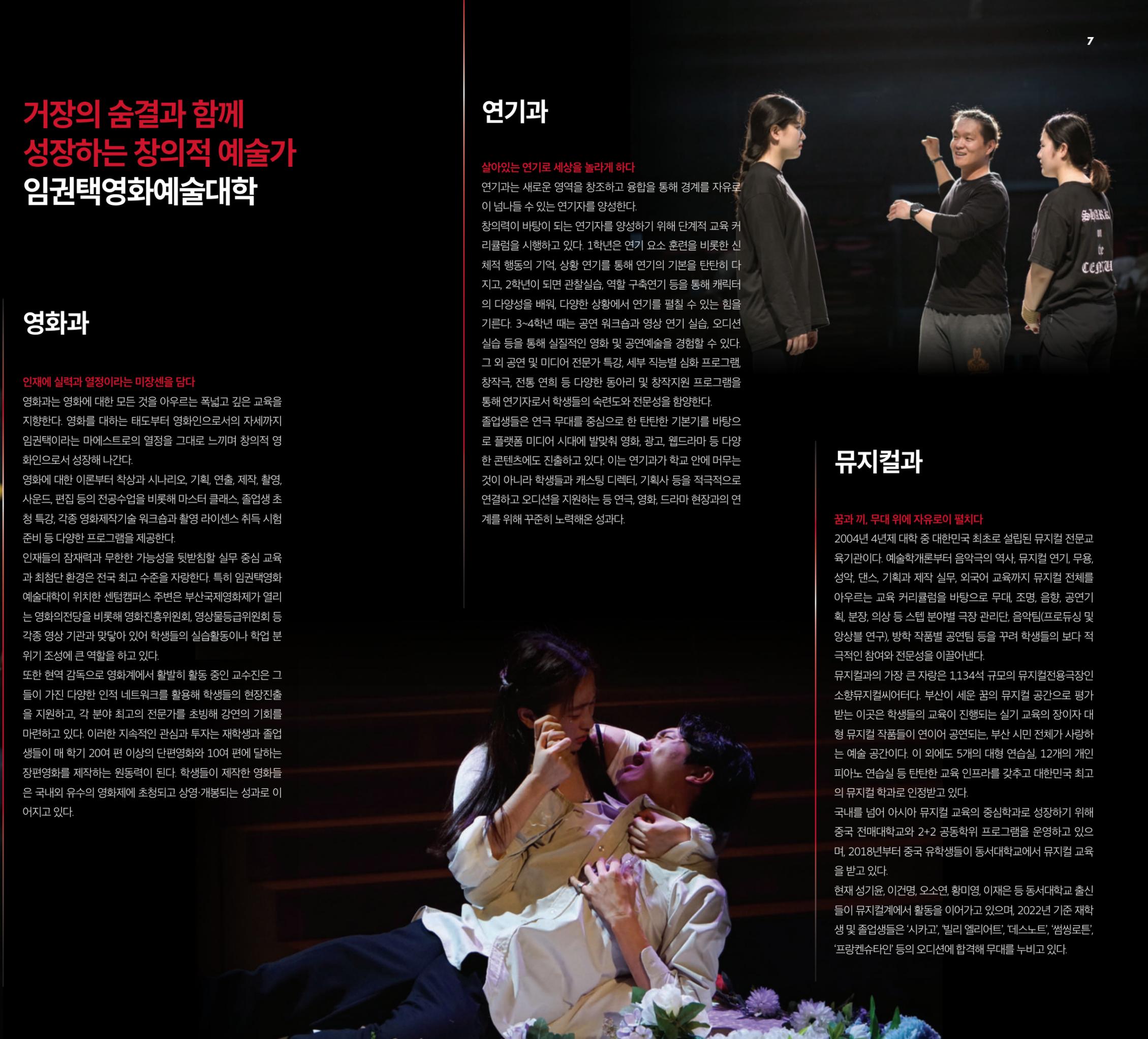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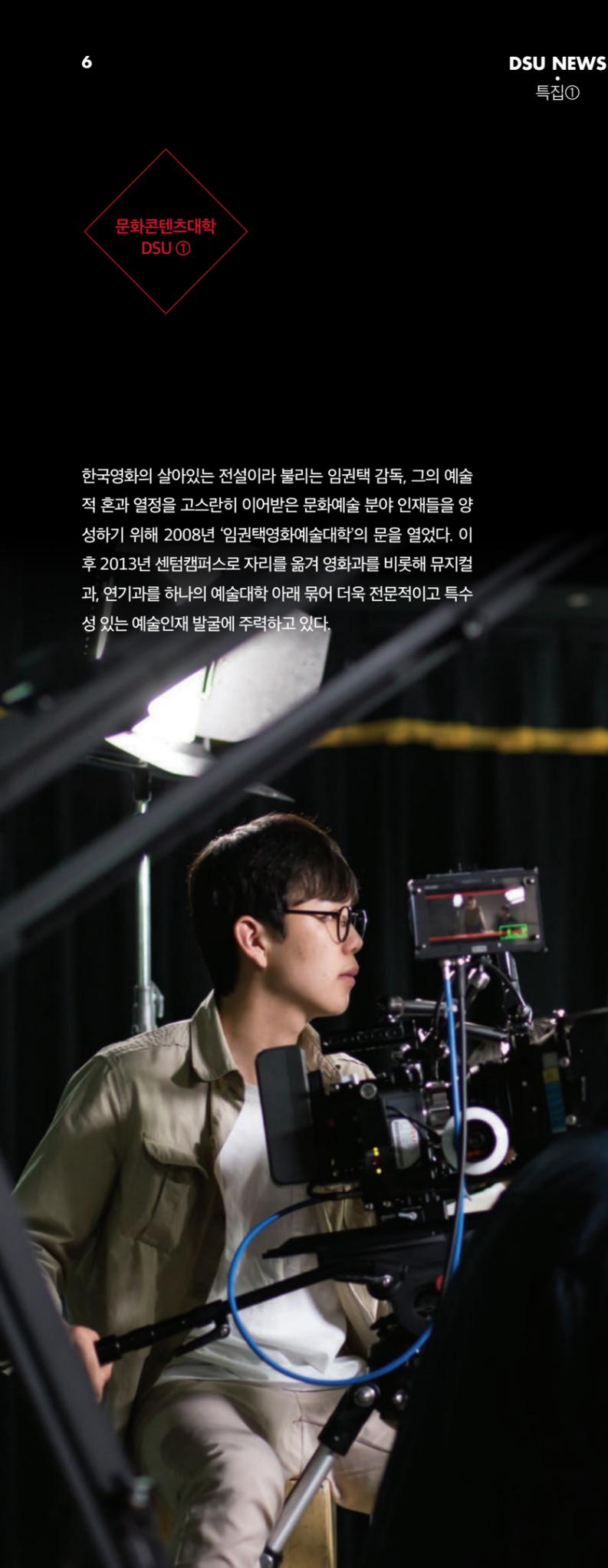
꿈과 끼, 무대 위에 자유로이 펼치다

2004년 4년제 대학 중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뮤지컬 전문교육기관이다. 예술학개론부터 음악극의 역사, 뮤지컬 연기, 무용, 성악, 댄스, 기획과 제작 실무, 외국어 교육까지 뮤지컬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무대, 조명, 음향, 공연기획, 분장, 의상 등 스텝 분야별 극장 관리단, 음악팀(프로듀싱 및 앙상블 연구), 방학 작품별 공연팀 등을 꾸려 학생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성을 이끌어낸다.

뮤지컬과의 가장 큰 자량은 1,134석 규모의 뮤지컬전용극장인 소향뮤지컬씨어터다. 부산이 세운 꿈의 뮤지컬 공간으로 평가받는 이곳은 학생들의 교육이 진행되는 실기 교육의 장이자 대형 뮤지컬 작품들이 연이어 공연되는, 부산 시민 전체가 사랑하는 예술 공간이다. 이 외에도 5개의 대형 연습실, 12개의 개인 피아노 연습실 등 탄탄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학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 뮤지컬 교육의 중심학과로 성장하기 위해 중국 전매대학교와 2+2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중국 유학생들이 동서대학교에서 뮤지컬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 성기윤, 이견명, 오소연, 황미영, 이재은 등 동서대학교 출신들이 뮤지컬계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시카고', '빌리 엘리어트', '데스노트', '썸씽로튼', '프랑켄슈타인' 등의 오디션에 합격해 무대를 누비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분야가 공연 예술분야다. 코로나19 이전보다 거의 반 토막이 났다고 표현할 정도다. 게다가 문화예술 분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김대승 학장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이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을 선택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자문하고, 또 고민한다. “답은 임권택영화예술대학만의 장점에 있습니다. 최신장비와 시설, 위치 등 인프라는 기본이고 임권택 석좌교수님을 비롯해 활발하게 현역으로 활동하는 배우와 연출가, 감독 등으로 이루어진 교수진은 실무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숏폼 등 뉴미디어의 등장은 영상 및 공연예술 산업이 더 이상 수도권에 집중되어야 할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 내는 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Skill 교육에 힘써 온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의 교육방향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역인 교수진은 그들이 가진 산업 내에서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강사를 초빙하고, 졸업생들의 현장 진출을 지원하여 지역 내 타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영화, 연극, 뮤지컬 등 현장에 가장 많이 진출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의 시작을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은 누가 봐도 전국 최고의 예술가 양성학교로 탈바꿈했다. “2012년 김병준 동문의

영화 '개똥이'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고, '레미제라블'로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서 수상했을 때 그건 우리에게도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화 '정순'이 2022년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이나 2021년 연극 '저널리즘'이 대한민국 연극제 은상을 수상한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성장해 왔고 많은 사람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 전문지 《버라이어티》가 '세계 20대 영화학교(World top 20 film schools)'를 발표하면서 컬럼비아대, 예일대, 폴란드 국립영화학교 등과 함께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이를 말해줍니다.”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려한다. 영화과, 연기와, 뮤지컬과 재학생이 함께 모여 직접 만드는 장편영화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단과대학 차원에서 장편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력만 하면 졸업하기 전에 장편 영화로 데뷔할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년 여름 크랭크인을 목표로 시나리오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감독, 촬영, 연기 등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김대승 학장

왜 학생들은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을 선택해야 하는가

김대승 학장의 필모그래피

<번지점프를 하다>, <혈의 누>, <후궁 : 제왕의 첩>, <조선마술사> 등

영화과



디테일스튜디오 이태동 대표

그가 제작한 웹드라마 '종종소(종소종소종소기업)' 시즌 1~3은 국내 OTT앳차에 IP가 판매되었고, 시즌 4~5는 앳차 오리지널로 제작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종종소는 국내 웹드라마 최초로 2022년 4월에 열린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비경쟁 부문에 초청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 공개한 차기작 '강계장'도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영화감독 정지혜

영화 '정순'으로 2022년 5월에 열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는 동영상이 유출 사건을 모티프로 피해자인 정순의 표정과 몸짓에 포커스를 맞춰 인간적 수모를 감당하던 한 여성의 결단을 힘 있게 묘사해 호평을 받았다.

뮤지컬과



뮤지컬 연출가 이재은

뮤지컬과 1기 졸업생으로 현재 신시컴퍼니 소속의 연출가이자 뮤지컬 '맘마미아', '유리타운', '듀엣' 등의 연출가로 활동하며 한국 최고 프로덕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뮤지컬과 졸업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후배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뮤지컬과 교수 성기운

뮤지컬과 5기 졸업생으로 '맘마미아', '아이다', '시카고', '유리타운', '모래시계', '남한산성', '라스트5이 어스', '그와 그녀의 목요일', '침향' 등 다수의 뮤지컬과 연극 작품에 주요역으로 출연하였으며, 최근 공연뿐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로도 활동영역을 넓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비상선언' 등 매체에 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13회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조연상, '골드티켓어워즈 남우조연상' 등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 현재 동서대 뮤지컬과 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하다.

연기와



배우 고인범

드라마 '추노', '보좌관',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검사 프린세스'와 영화 '범죄와의 전쟁', '완득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 출연작마다 강렬한 인상의 명품 조연으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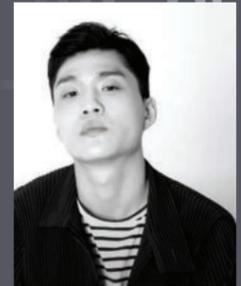
배우 정재원

황정민 주연의 영화 '인질'에서 '용태'역으로 출연한 주목받고 있는 배우. 정재원은 연극 '옥탑방 고양이', '데스트랩', 뮤지컬 '빨래'와 '줄리엔폴'에도 출연하며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배우 김태영

웹드라마 '종종소'의 이미나 대리로 유명한 김태영 배우는 최근 프랑스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핑크카펫 행진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행보를 선보이며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배우 김기주

연극 '플레이백'으로 주목받으며 영화 '축가', '눈밭'을 거쳐 Seezn의 드라마 '강계장'의 주연배우로 활약하고 있다.

The Only One 디자이너를 향한 출발 디자인대학

문화콘텐츠대학
DSU ②

혁신을 거듭하는 디자인대학만의 특별한 교육과정

2012년 불과 설립 10년 만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문분야 평가에서 '디자인교육'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며 디자인 교육의 파란을 일으켰던 디자인대학. 이후 2014년부터 전공 간의 벽을 허물어 혁신적인 융복합 루트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자인학부에서 디자인대학으로 출범했다. 이와 같은 차별성으로 인해, 디자인대학은 짧은 기간에 국내외 대표적인 디자인교육 기관 중 하나로 부상했고, 부울경 입시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해마다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설립 30년을 맞은 올해 디자인대학은 또 한 번의 변신을 시도했다. 전공심화 교육과 주제 중심의 '크로스 오버(Cross Over) 융합교육'을 바탕으로, 디자인학부의 시각디자인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제품인터랙션디자인전공, 환경디자인전공의 4개 전공체제와 패션디자인학과, 광고홍보학과, 건축학과로 개편하여 영향력과 교육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는 각 전공 간 원활한 교차실습 체제를 통해 다기능, 다채널 시대에 필요한 하이테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미래형 주제 중심 교육인 크로스 오버 융합교육이다. 이 특화된 커리큘럼은 무학년 융합수업으로 2~4학년이 수강할 수 있다. 단, 서비스경험디자인의 경우 수준별 진행으로 3~4학년에게만 운영하며, 졸업할 때까지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이크로 디그리는 '학점당 학위제'로 특정 분야에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학사학위와 별개로 미니 학위를 주는 제도이다.

1992년, 디자인이 '디지털화'라는 큰 변화를 시작할 즈음에 설립된 디자인대학은 전통적인 대학에서 시도하지 못한 도전적인 실험을 하며,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올해로 30년,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는 디자인대학을 설명하는 가장 명확한 수식어가 되었다.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 교육을 추구해온 디자인대학의 열정은 우리나라 디자인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서포트 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보다 자유로운 시야와 창의적 디자인 소양을 갖춘 전문가들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디자인 특화 공간도 구축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작업공간인 'Creative α-LAB'과 5,183권의 국내외 디자인 전문서적을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도서관', 디지털 전문 갤러리인 'E갤러리', 메이커 스페이스 'Fab-Lab' 등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디자인적 시야를 넓히기 위해 글로벌 프로그램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을 석좌교수로 초빙하는 것이 그 첫 번째다. 대표적 인물이 2019년 석좌교수로 위촉된 이코 밀리오레(Ico Migliore)다. 이탈리아 유명 공간 디자이너인 이코 밀리오레는 세계적인 패션 기업 막스마라(Max Mara)의 전속 공간 디렉터이자 뉴욕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의 공간 디자인을 총괄한 건축가로 매년 특강과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의 디자인적 시야를 넓혀주고 있으며, 방학 때는 이코 밀리오레가 운영하는 밀라노 소재 건축회사 'M+S Architect'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대학은 자체 국제화 프로그램도 실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한 'GDS(Global Design Society) Program'을 통해 디자인 중심지인 미국 뉴욕과 이탈리아 밀라노는 물론, 일본, 중국, 대만, 호주 등에 위치한 해외 유명 디자인스쿨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줄을 잇는 공모전 수상 소식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매년 300여 명의 학생들이 국내외 유명 공모전에서 수상을 이어가고 있다. 2017년에는 368명, 2018년에는 203명, 2019년에는 282명의 학생들이 독일의 'Red Dot'과 'iF Design', 미국의 'IDEA', 체코의 'Czech Design Talent', 중국 상하이 휘장청춘 대학생 공모전 등에서 대거 수상하며 디자인대학의 우수성을 대외에 공고히 다져왔다.

최근에는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의 수상이 줄을 잇고 있다. 독일 Red Dot Design Awards에서 Best of Best 수상과 함께 총 16개 Winner 수상, 21년 CLIO Awards 은상 및 Shortlist 수상, New York Festival 국제 광고제에서 4개의 Winner 수상, 칸 광고제 Winner 수상 등 국내 대학 중 최대의 국제공모전 수상실적을 보임으로써 특성화 분야 대학으로서의 뛰어난 역량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공모전 대거 수상의 비밀은 '아이디어융합실습' 수업을 통한 융합교육에 있다. 이 수업은 디자인학부, 광고홍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등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공모전에 참가하는데, 그 시너지가 엄청나다.

앞으로도 디자인대학은 이러한 독특하고 흥미로운 수업과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 개개인의 역량을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그것이 디자인 인재는 물론이고, 동서대학교를 문화콘텐츠 Asia No. 1 대학으로 이끄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올해는 디자인대학과 동서대학교가 30년이 되는 해다. 특별한 해인만큼 디자인대학은 여러 모로 준비하는 것들이 많다. "9월 초에 디자인 관련 석학들을 초청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졸업한 동문들과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디자인대학을 Asia 최고의 대학으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일입니다. 글로벌 QS순위 상상을 위해 대학 시스템 안에서 교육과 연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해외 대학, 교육기관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퍼듀대와 SVA, 이탈리아 도무스, 호주 모나쉬대, 일본 큐슈산업대 등 해외 우수디자인 교육기관과 연계한 공동 수업 및 공동작업을 활성화하고, 우수논문 해외 학회 게재, 글로벌 디자인 공모전 출품, 해외 석학 초빙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LINC 3.0 선정 계기로 디자인대학은 더욱 바빠졌다. 선정과 동시에 그동안 준비해왔던 CV DESIGN ICC(Industry Coupled Collaboration) 연구센터가 문을 연 것이다. "CV DESIGN ICC는 AI경험디자인 융합연계전공, NFT디자인 융합연계전공, 해외 석학 교수님들과 글로벌 디자인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해외 기업의 인턴십 과정을 연계하는 3-axis 하이브리드 교육과정을 운영해 신산업 융합디자이너 양성을 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ESG디자인 및 라이프 케어 디자인, 스마트 스페이스 디자인, 지역 내 제조산업 및 섬유패션산업 디자인 등 새로운 디자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시도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학생'에 있다. 학교가 만든 인프라와 시스템, 브랜드 가치를 마음껏 이용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다. "학생들이 모교와 전공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했으면 합니다. 해외인턴 프로그램(K-Move)은 물론이고, 특히 융합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인 만큼 인문학이나 공학 같은 타 전공에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

을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안병진 학장이 말하는, 디자인대학과 동서대학교가 Asia No. 1으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역량까지 탄탄히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방법일 것이다.



안병진 학장

디자인대학 Asia No. 1을 목표로

디자인대학을 빛내는 동문들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 디스트릭트 박상화 디자이너
- 일본 나가오카조형대학 김봉수 교수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이현규 차장
-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소문제 차장
-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이인성 교사
- 굿디자인연구소 김경리 대표
- ㈜메타디자인 이재익 대표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 KBS방송국 김성영
- NHN(NAVER) 전동호, 심민혜
- NHN(LINE) 최진석, 임재호
- TBWA코리아 최인철 아트디렉터
- 두프로젝트 여희재 대표
- KakaoTalk 라성민
- d'strict(디스트릭트) 이시우
- 젠틀몬스터 한상훈
- EasyWith 강지원
- leostudio 김대홍 대표
- 올드뉴스 이승엽 대표
- lightive 강혁 대표

패션디자인학과

- 세아상역(주) 정선문 디자이너
- 젠틀몬스터 김지순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에디터 및 디자이너
- 베베앤비노 이아름 대표

건축학과

- 건축사사무소엠아크 정창주 소장
- 작업공간 김주석 대표
- 이도건축사사무소 김동준 대표
- ㈜위더스 디자인그룹 김철홍 대표



환경디자인전공

- ㈜PDM 파트너스 김민주 이사
- ㈜oftn studio 김수지 대표
- ㈜EAE & Technology 스마트 에코디자인본부 양창석 매니저
- ㈜디자인디 우은별 대리
- Design by 83 박찬연 공동대표
- ART.DOEUN@art.doeun 김도은 아트디렉터
- 종합건축사사무소 새움디자인 이나경 과장
- Matteo Cainer Architectur in Milano 이연수 디자이너

제품인터랙션디자인전공

- 루메나 정지홍, 전승엽 제품디자이너
- 쿠쿠전자 안승호 제품디자이너
- 카카오톡 '닉에시' 이모티콘 개발 박철연 디자이너
- 휴롬 김태진 제품디자이너
- 일본 닛산자동차 제한승 디자이너
- Dell 광용욱 디자이너

광고홍보학과

- 대흥기획 최환희 AE
- 롯데건설 홍보실 강수근
- 테슬라코리아 남택광 마케터
- 마더브레인 현정화 AE
- 피알원 김기연 부장



DESIGN SIGM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미디어콘텐츠대학

문화콘텐츠대학
DSU ③

바야흐로 미디어 시대다. 지금껏 이 정도로 미디어 분야가 발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미디어와 콘텐츠는 다양해지고 더 전문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미디어콘텐츠대학은 이토록 다변화되고, 다양해지는 미디어 플랫폼 속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주도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현재를 뛰어넘는 인재'를 위한 새로운 미래 전략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 최강의 학과들이 뭉쳤다

미디어콘텐츠대학은 기존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의 방송영상학과와 디지털콘텐츠계열의 게임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웹툰학과가 올해 새롭게 연합하여 조직된 단과대학이다.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 공학계열이 융합된 단과대학으로 한층 더 강화된 교육 역량을 자랑한다.

'문화콘텐츠 Asia No. 1 대학'이라는 수식어의 시작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영상학과와 게임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웹툰학과는 동서대학교를 '문화콘텐츠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설립된 학과들로, 미디어의 대전환 시대에 맞춰 누구보다 앞서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를 연구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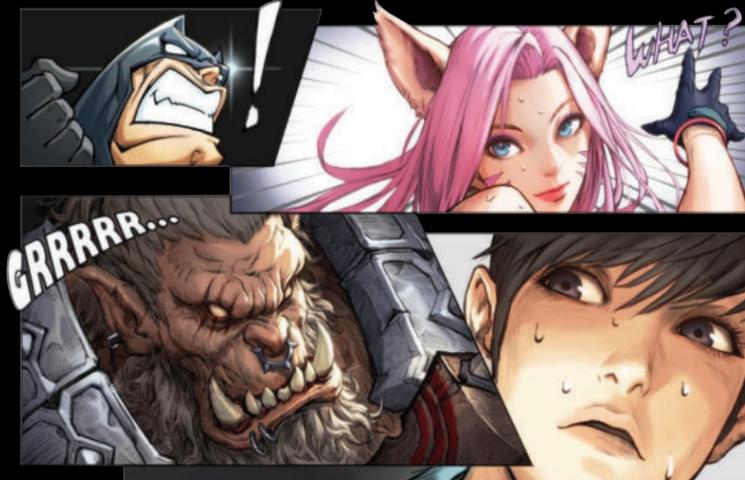
그 결과 2004년 '지역대학혁신사업(NURI) 대형 사업단' 선정 을 시작으로, '해외교수 초빙 우수대학 사업(2005)', 'BK21사업 (2006)', '문화콘텐츠 특성화 교육기관 지원사업(2005, 2008)', '지역혁신센터사업(2008)', 'BK21플러스사업(2013)', 'CK-1사업(2014)', '지방대학 특성화 우수학과(명품대학)(2014)', '산업계관점대학평가 최우수 대학(2015, 2016, 2019)',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2019)' 등의 놀라운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산학 중심 교육을 위해 2005년 설립된 학교기업 '애니모션'은 2009년 1단계에 이어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학교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3단계 연속 선정은 전국 유일의 쾌거로 애니모션은 캐릭터 IP기반의 OSM사업, CG영상 제작 지원사업, 어트랙션 콘텐츠 라이선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Asia No. 1, Global Top 10을 향한 제2의 도약

동서대학교에서는 제5차 중장기 발전계획 2단계로 특성화 분야를 글로벌대학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Asia No.1, Global Top 10 문화콘텐츠 중심대학'이라는 기치 아래 2021년 2월 총장 직속의 특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다.

그중 '디지털콘텐츠 특성화2.0 특별위원회'에서는 영상 분야와 디지털콘텐츠 분야를 통합하여 특성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XCCT(the eXtended Contents, Culture and Technology)'로 명명된 문화콘텐츠 교육·연구·네트워킹 클러스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콘텐츠의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교육과 연구, 글로벌에 대한 9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XCCT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디지털콘텐츠 계열(게임, 영상애니메이션, 웹툰)뿐 아니라 방송영상학과가 함께 참여했고, 이로 인해 문화콘텐츠분야 단과대학이 설립된 것이다.



K-콘텐츠 제작의 선두주자 양성을 위한 최첨단 교육환경

모든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편성되며, 대부분의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쓰고, 만드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송영상학과와 가장 큰 자랑은 '교내현장시스템인 IFS(In-School Field System)'다. 이는 단순히 이론을 가상으로 실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기업이나 공공기관 현장과 협업해 결과물을 내는 교육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실무경험을 할 수 있다. 게임학과에서는 게임의 기획과 실무 제작, 마케팅까지 다룰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게임테크놀로지', '게임아트', '게임기획' 등 3개 세부전공으로 구성해 다양한 창의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역시 현업 출신의 겸임 교수들을 두고 최신 장비가 갖춰진 스튜디오에서 직접 결과물을 만드는 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 2022년 신설된 웹툰학과와 경우에도 실제 웹툰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를 교수진으로 초빙하고, 산학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이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체계는 특수한 인프라를 통해 보다 원활하고 생생하게 이루어진다. 회사시스템을 똑같이 구현한 미래형 강의실 '미디어 아웃렛', 플립러닝과 PBL 수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스크린 세어 환경을 구축한 'MOA(Media Outlet Annex)'가 대표적이며, '다빈치피자다'와 'XCCT Labs'도 빼놓을 수 없다. 다빈치피자다는 피자도링, 스킨링 등 실습 중심 교과목과 연구회 활동, 단편 영상제작 등의 비교과 활동 등을 진행하는 공간이고, XCCT Labs는 R&D 중심의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국내 최고의 미디어 콘텐츠 연구시설이다.

미디어콘텐츠대학은 그동안 독보적인 실무교육 환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디어콘텐츠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역할에 충실해 나갈 것이다.



이동훈 학장

시대적 도전에 대응하는 미디어콘텐츠 교육의 내일을 위해

“그동안 우리는 학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학교의 입지와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탄탄히 세우는 데 성공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는 기존 4개의 학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온 특성화 학과들이 뭉쳐 만들어진 미디어콘텐츠대학의 출범은 이미 꾸준히 준비해온 일이었다. 특히 작년 발족한 ‘디지털 콘텐츠 특성화 2.0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출범에 가장 주효했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영상 분야와 디지털콘텐츠 분야를 통합한 장기 특성화 계획의 기초가 완성되었습니다. XCCT라는 이름 하에 우리 4개의 특성

화 학과들이 함께 해 나갈 교육, 연구, 국제화 분야에 대한 과제가 도출된 것입니다.”
밑그림은 그려졌고, 이제는 그간 탄탄하게 구축해온 입지와 성과들을 바탕으로 새 시대에, 새 과제들을 얼마나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동훈 학장은 급변하는 미디어콘텐츠 환경에 맞게 교육과정과 행정을 개편하고, 교수진의 자원 공유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이동훈 학장은 이번 대학 개편이 동서대 학교가 Asia No. 1으로 도약하는 데에도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 분야 아시아 최고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아시아 최고가 되어야 한

다며,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등 실질적 대학 역량 향상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이미 우리는 최고의 교육환경과 교수진을 갖추고 있고, 배출되는 학생들의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에게 Asia No. 1이라는 구호는 단지 슬로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달할 목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브랜드 파워는 우리가 견인해 나간다는 소명을 가지고 최고를 지향해 온 소속 학과들의 전통을 이어 받아, 미디어콘텐츠 분야 명품 대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방송영상학과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주)글라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자회사)
박현지 부대표

2009년 한국의 대표적인 드라마 제작사인 (주)삼화네트웍스에 입사하여 드라마 '천사의 유혹', '인생은 아름다워', '구가의 서', '낭만닥터 김사부1' 등 수많은 작품의 프로듀서로 활약했으며, 2022년부터는 (주)글라인 부대표로 선임되어 K-드라마의 성공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
영상제작팀 이도형

영상제작팀에서 소속 아티스트 관련 프로모션 영상 제작과 영상 사업 콘텐츠 제작 등의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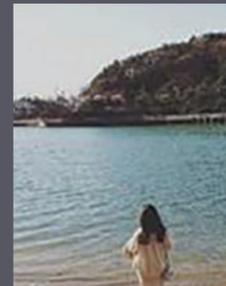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영화 '젯츠'
위지웍 스튜디오
라이팅 아티스트 조주연

캐나다의 영화 VFX스튜디오인 Mill Film에서 라이팅 아티스트로 일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위지웍 스튜디오에서 라이팅 아티스트로 근무 중이다. 영화 '승리호'와 다양한 광고, 드라마 작품에 참여했다.

게임학과



필어비스
3D 배경 아티스트 안소정

게임제작사 블루사이드에서 '킹덤언더파이어2' 개발에 참여했으며, 현재 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3D배경 아티스트로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넷마블 넥서스 프로그래머
김영일

게임제작사 넷마블 넥서스에 재직 중이며 '세븐나이츠2' 프로그래밍 콘텐츠 파트를 맡고 있다.



로커스 FX아티스트
이민규

로커스에서 자체 IP애니메이션인 '퇴마록 시리즈'와 '유미의 세포들', NC soft의 '블레이드 소울 2' 및 영화 '강철비2', 드라마 '빈센조의 VFX'에 참여했다.

여름은 세상을

더욱 단단하게 하므로

세차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싱싱한 별이 세상을 비춥니다.
녹눅했던 땅은 더욱 단단해지고, 녹음은 한층 짙어집니다.
그렇게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위해 자연의 생명력을 절정으로 끌어올립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빛을 머금어 윤이 나는 나무처럼
동서대학교는 지금 한창 여름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던 길 위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성장하는 나무처럼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여름의 한 가운데, 동서대학교는 빛이 납니다.
그 빛은 에너지가 되어 학생들의 꿈이 세상 속에서
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자양분이 되어줍니다.

동서대학교의 여름,
그 속에서 청춘의 꿈도 함께 깊어집니다.



LINC 3.0 수요맞춤성장형

LINC 3.0은 기술혁신선도형,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으로 나뉜다. 동서대학교는 이 중 '수요맞춤성장형'에 선정되었다. 수요맞춤성장형은 각 대학에서 학부와 석사가 참여해(대학원 일부) 산업계 및 미래사회 수요 기반의 인력양성 고도화 및 기업지원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학생 수요 맞춤형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기업지원 고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메타기술기반 문화콘텐츠 산학협력 선도모델 LINC 3.0 선정

미래 문화콘텐츠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다

LINC 3.0사업단장 황기현 교수



동서대학교의 산학협력은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을 시작한 2012년부터 동서대는 오롯이 '문화콘텐츠'에 집중하며 지금의 문화콘텐츠 특화 대학의 면모를 갖게 되었다. LINC 사업이 시작한 지 딱 10주년 되는 해 2022년 동서대학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문화콘텐츠' 산학협력 선도모델 구축에 나선다. 지난 5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에 선정되어 '메타기술기반 문화콘텐츠 분야의 산학협력'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LINC 3.0사업과 함께하는 미래는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황기현 사업단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올해 5월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서 진행된 LINC+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LINC 3.0사업은 LINC+사업을 바탕으로 신기술과 첨단산업 중심의 인력양성, 기업가형 대학 육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서대학교에서는 신기술 분야를 메타기술(빅데이터 활용 기술, 다중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가상·혼합현실 기술, NUI·NUX기술 및 지식정보 보안기술)로, 첨단산업 분야는 메타버스 콘텐츠산업으로 선정하여 인력양성과 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기술기반 문화콘텐츠 산학협력 선도 모델은 LINC 1.0, LINC 2.0과 비교해서, 인력양성은 IFS 3.0기업트랙, IFS 3.0-PBL 교수법, JIT200(산학교과목), 취·창업교육은 PASTEL 창업교육, IM READY 취업지원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화는 XCCT Labs, XCCT Space, XCCT Global로 구성된 XCCT 콤플렉스, 비대면 글로벌 교육은 3-aXis 글로벌교육 모델로 혁신하고자 합니다.

Q. LINC 3.0사업 선정을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였나요?

LINC 3.0사업 선정을 위해 대학중장기발전 계획과 산업분석을 통하여 대학의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정·보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LINC 3.0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새로이 선정하고 산학협력체계,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에서 산학협력 ISCD 플랫폼 운영, IFS3.0 교육혁신모델, XCCT 콤플렉스 모델 등과 같은 6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ICC(기업협업센터)의 재평가를 거쳐 새롭게 3대 ICC를 선정하였습니다. LINC 3.0사업 선정 평가에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성과 관리체계가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Q. LINC 3.0 사업단은 인재양성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나요?

인력양성분야는 'IFS 3.0 교육혁신모델', '3-aXis 글로벌 교육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IFS(In-school Field System)는 동서대학교에서 전공 특성에 맞게 구축한 교내현장시스템으로 이에 기반한 산업 연계형 IFS 3.0 교육혁신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FS 3.0 교육혁신모델은 IFS 3.0 기업트랙, IFS 3.0-PBL 교수법, JIT200(산학교과목)으로 체계화된 채용연계형 기업협약 교육과정으로 신산업분야 수요맞춤형 미래인재 양성 모델입니다.

Q. 인재양성 외에 지역 기업 또는 지역사회와는 어떤 협력을 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무엇을 해 나갈 계획인가요?

XCCT Labs, XCCT Space, XCCT Global을 통해서 산학연 신기술 개발을 이용한 XCCT 콤플렉스 구축하고자 합니다. XCCT Labs는 교수, 학생(대학원생), 산업체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기술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 및 콘텐츠분야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XCCT Space는 버추얼 스튜디오 등의 첨단 제작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용 콘텐츠 개발, 우수기업 발굴 및 퍼블리싱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XCCT Global은 해외기업 네트워크 및 캠퍼스를 활용하여 기술사업화, 콘텐츠 상용화를 기반으로 자회사 설립과 ICC 브랜드 및 자립화를 지원하는 인프라입니다. 이를 통해 ICC 자립화 및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ICC 브랜드 모델을 개발할 것입니다.

LINC3.0 활동들

- 1 온라인 게임타이틀 제작 기업인 COCONE V와 K-게임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 2 ㈜LG헬로비전과 라이브커머스 인재 양성을 위한 IFS3.0방송영상제작(라이브커머스) 트랙 개설 협약
- 3 롯데디자인츠와 클래스셀링® 업무협약식



동서대학교 30주년 기념행사 프리뷰 새로운 미래 30년을 기대하며

1992년 동서공과대학이 문을 열었다.
그동안 동서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기존 교육의 틀을 깨는 혁신적 교육을 시도하며
미래형 대학으로 성장해 왔다.
그 도전의 역사는 올해로 30년을 맞이했고,
그 결실들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려 세상을
더욱 건강하고 밝게 만들어가고 있다.
동서대학교는 지나는 3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약 1주일간 열리는
30년 축하의 자리에서 현재를 둘러보고,
다가올 미래를 함께 응원해 보자.



동서대학교의 30년, 여러분 '덕분입니다'

1991년 11월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동서대학교는 당시 8개 학과 400명의 작은 공과대학으로부터 출발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재 5만 여 명의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에 현지 캠퍼스를 구축한 新명문 사립대학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는 개교 이후 전 구성원들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일구어낸 값진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때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론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가 신뢰하고 국가가 인정한 대학으로 성장해나갔다.

지나온 30년의 역사를 반추하고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열리는 개교 30주년 기념행사에는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9월 1일 이 모든 것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열리는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설립자·이사장 자료전시회'와 '학부 학술제'가 주례 캠퍼스 전역에서 열린다. 센텀캠퍼스 소향뮤지컬씨어터에서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동서대 수상작 상영회를 열어 교육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린다. 특성화분야 선포식을 겸한 메인 행사인 '30주년 기념행사'는 9월 6일 본교 소향아트홀에서 개최해 30년을 대외에 알리고, 또 한번의 전환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미디어 갤러리 전시, 아날로그 전시, 미디어 아트 갤러리 오프닝 행사, BK학술행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30주년 기념 슬로건을 '덕분입니다'로 정해 지난 30년 동안 동서대와 함께 한 내외의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를 담아냈으며, 30주년 기념앨범(디자인대학 안병진 학생)도 제작해 건학 30년의 의미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역사 기록물로서 《동서대학교 30년사》도 편찬해 설립자 내외가 동서학원을 설립하고 이후 대학의 태동, 종합대학교로서의 출범, 특성화 교육의 선두주자와 미래형대학으로 발돋움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담아냈다.

덕분입니다

30

주년

ANNIVERSARY

동서대학교 30주년 기념행사

• 주례캠퍼스 • 센텀캠퍼스 • 기타

* 2022년 7월 31일 기준이며, 행사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9월 1일(목)	9월 3일(토)	9월 6일(화)	9월 7일(수)
09:00 • 대학교회 감사예배 10:00 • 민석도서관 민석도서관 소장작품 전 및 설립자·이사장 자료전시회 (~18:00) • 소향뮤지컬씨어터 동서대 수상작 상영회 11:00 • 각학부 학부 학술제(~18:00)	10:00 • 소향뮤지컬씨어터 동서대 수상작 상영회 9월 5일(월) 10:00 • 디자인홀 Alumni Show 미디어갤러리 전시 IC빌딩 Alumni Show 아날로그 전시 (~18:00) 15:00 • 문화센터 콘서트홀 명예박사 학위수여식(~17:00) 18:00 • 명예박사 축하만찬	10:00 • 디자인홀 Alumni Show 미디어갤러리 전시 IC빌딩 Alumni Show 아날로그 전시 (~18:00) • 밀레니엄관 2층 명예의 전당 제막식 (~11:00) 10:30 • 디자인홀 1층 Media Art Gallery 오프닝(~11:00) IC빌딩 테이프카팅식 VIP 투어(~11:00) 16:00 • 소향아트홀 30주년 기념행사 특성화분야 선포식(~17:00) 17:00 • 디자인홀 앞뜰 30주년 기념 만찬	10:00 • 디자인홀 Alumni Show 미디어갤러리 전시 IC빌딩 Alumni Show 아날로그 전시 • 소향아트홀 BK학술행사 오프닝 Keynote Speech BK 강연 (~18:00) 13:00 • 민석도서관 1층 민석음악회

교수들이 직접 소개하는 '동서대학교를 빛낸 수상작들'

동문들의 실력은 이미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수많은 국내외 유명 공모전에서 학교의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저마다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작품들을 내놓으며 최고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최고의 교수진들에게 동문들의 수상작에 대한 소개와 이야기를 부탁했다.

디자인대학 광고홍보학과
류도상 교수

융합교육을 통해 탄생한, 세상에 없던 창의적 인재

이런쪽
자유로운,
창혼의
반작용은
창의력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2015년 아이디어션 융합 교과목을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의 기간이 흘러 중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융합수업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광고홍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디자인학과와 같이 각각의 특징과 개성이 뚜렷한 학과 간의 융합수업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매 학기 수업마다 3개 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각각의 팀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것을 작품화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짧지 않은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괄목할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27개 작품이 Red Dot Design Award Winner 수상과 함께 상위 1%에게만 수여하는 Best of Best에 3개 작품이 수상하는 등 획기적인 성

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클리오 어워즈 은상 3개, 동상 1개 수상, 칸광고제 Winner 수상, 뉴욕 페스티벌 22년 금상, 은상, 동상 수상, 파이널리스트 5개를 수상하며 세계 3대 광고제를 동시에 석권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디자인대회에서는 6년 연속 7개의 장관상을 수상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전공이 다른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수업마다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로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며,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서로에게 배울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좌절과 극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정한 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미래 시대에 어울리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과
강동헌 교수

동서대와 부산이 함께 만드는 수준 높은 영화

2022년은 영화과 졸업생들이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 등의 작품이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초청받고 상을 수상하는 등 유독 좋은 일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이슈는 정지혜 감독의 <정순>이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대상을 수상한 것과 손경원 감독의 <양치기>가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코리안 판타스틱 공식경쟁부문에 초청된 것입니다. 거기다 인기 웹드라마 <종종소>를 제작한 이태동 감독은 올해 칸 국제시리즈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핑크카펫에 입성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영화 <정순>은 결혼을 준비하는 딸과 단둘이 지내던 엄마 정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잠잠하던 그의 일상은 직장 동료 영수와 연인 사이가 되며 모두 엉망이 됩니다. 영수가 정순의 동영상을 찍고, 그것이 유출되면서 완전히 일상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정지혜 감독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비된 일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고통을 명확히 표현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영화는 부산영상위원회의 '2019년 부산신진작가 영화기획개발 멘토링 지원사업'과 영화진흥위원회의 '2020년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2021년 부산지역 영화 영상 콘텐츠 후반작업기술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영화 <양치기>는 이습우화 《양치기 소년》을 모티브로 합니다. 집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열두 살 소년 요한은 그에게 선의를 베푸는 담임교사 수현에게 집착하고, 그에 대한 거짓말을 퍼트려 수현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영화를 통해 손경원 감독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이자 거짓말을 하는 가해자인

이 소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영화 또한 부산에서 기획하고 제작된 영화이고, <정순>에 이어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영화과 인재들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웹드라마 <종종소>는 직장인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며 1화 조회수가 200만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왓챠'가 투자해 왓챠 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태동 감독은 부산에서 학과 후배들과 함께 만든 <종종소>를 시작으로 여러 편의 IP를 파는 부산식 영상제작의 성공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작품 모두 부산의 인재들이 부산에서 기획부터 제작, 촬영, 후반작업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이자 성과입니다. 이는 영화과가 그동안 얼마나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해왔는지 증명해주는 결과이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손경원 감독 영화 <양치기>
2. 정지혜 감독 영화 <정순>
3. 칸 국제시리즈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이태동 감독 웹드라마 <종종소>

거짓말을 뛰어넘는
또 다른 거짓말들을 기대합니다



미디어콘텐츠대학 방송영상학과
박미선 교수

탄탄한 기획력과 수려한 영상미로 실력을 인정받은 작품들

청춘의
눈과
그로테스크한
세계의
아름다움

학생들은 매년 전국단위 영상공모전에서 풍성한 수상결실을 거두며 현장 실무형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말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많지만,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 다섯 가지만 소개하려 합니다. 가장 먼저 '2019 울산의 유산 UCC공모전'에서 대상(KBS사장상)을 받은 강범철 동문의 '리바이어던(Leviathan) : 고래, 살아 숨 쉬는 전설'입니다. 존 밀턴의 장편 서사시 《실낙원》에서 지구상 가장 거대한 짐승 '리바이어던'으로 묘사되는 고래에 관한 단편 다큐멘터리입니다. 울산 앞바다 고래의 존재를 탐구해 가는 이 다큐멘터리는 장엄한 영상미와 함께 귓가에 맴도는 고래의 울음소리가 오래도록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두 번째 작품은 한동훈 동문이 제작한 7분 분량의 부산소개 영상입니다. '제13회 부산영상공모전' 대상 수상작인 '부산 WAVE'는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송정 서핑, 해운대 요트 투어 등 부산의 해양레저스포츠를 시원하고 다이내믹한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사진을 좋아하던 한동훈 동문의 뛰어난 기량으로 탄생한 유려한 영상미는 부산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마법같은 시간을 선물해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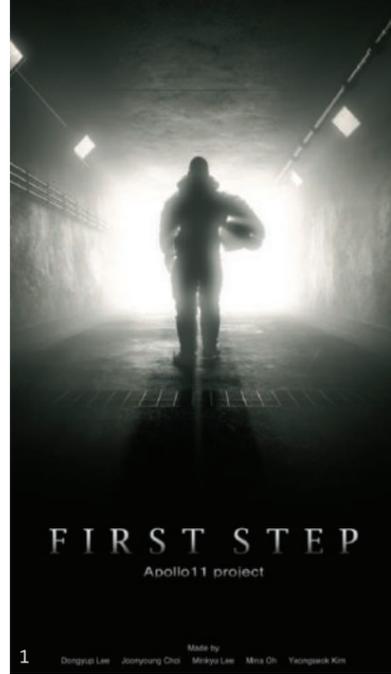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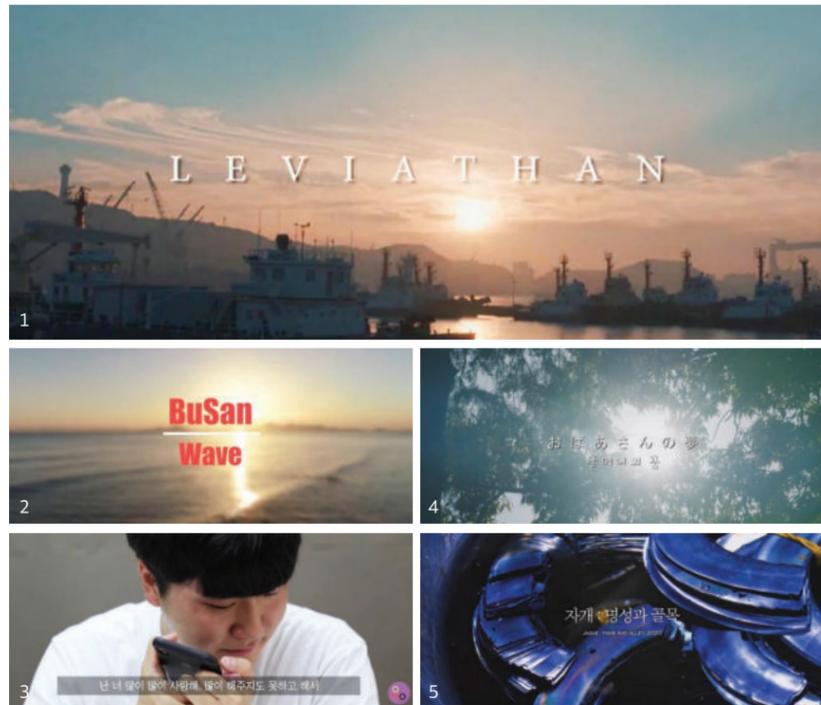
다음은 '2019 모카 어워즈(MOCA Awards)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소중한 그대'입니다. 설문조사와 전화라는 장치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 대해 오히려 소홀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작품입니다. 가장 심플한 방식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주며 관객들에게 눈물과 웃음을 선사합니다.

'소중한 그대'가 내 주변 부모님의 이야기를 담았다면 '할머니의 꿈'은 서일본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히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손녀 유키를 돌보며 여유롭지만 반복된 일상을 보내던 할머니에게도 잊힌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은 영상 마지막에 공개되는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서늘한 깨우침을 안겨 주리라 생각합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온라인콘텐츠 공모전' 국무총리상에 빛나는 이 6분 남짓의 짧은 영상을 보며 많은 것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자개 : 명성과 골목'입니다. '제15회 부산영상공모전' 대상과 '2021 KTV 국민영상제'에서 우수상(KTV원장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작품으로 좌천동 자개골목 장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묵히 본 인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장인들의 이야기와 작품들과 나전칠기의 아름다움, 가치를 온전히 담아냈습니다.

학생들의 눈으로 본 영상을 통해 미처 생각지 못한 세상의 가치를 깨닫고 한층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길 바랍니다.

1. 리바이어던
2. 부산 WAVE
3. 소중한 그대
4. 할머니의 꿈
5. 자개 : 명성과 골목



미디어콘텐츠대학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최동혁 교수

프로의 실력을 뛰어넘는 아마추어들의 반란

30주년 수상작 상영회에서는 작품성과 영상미로 화제를 모은 영상애니메이션학과와 6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2020 대전 비주얼 아트테크 어워즈'에서 특수영상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First Step'입니다. 이동엽, 김영석, 이민규, 오미나 동문이 제작한 이 작품은 아폴로13호의 달 착륙 과정을 전문가 못지않은 시각적 디테일로 표현해 낸 작품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컴퓨터그래픽 분야 세계 최고 유튜브 채널 'The CG Bros'에 선정되는 등 많은 영화제와 공모전에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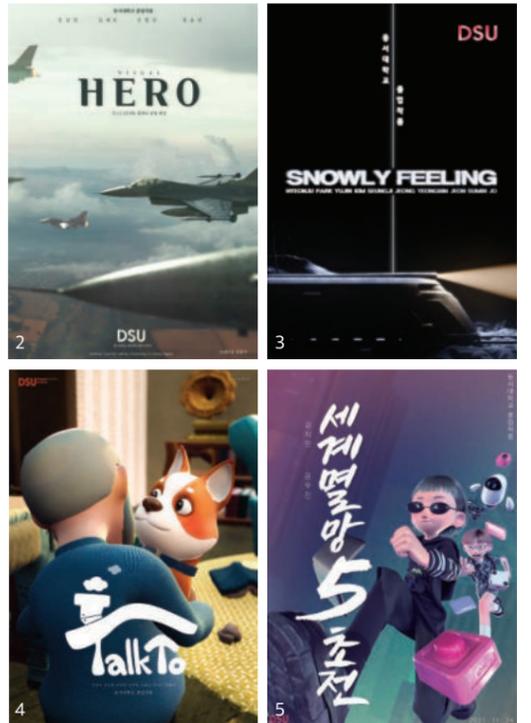
나머지 5개의 상영작들도 국내외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각종 영화제에 초청받는 등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들입니다. 류혜리, 김연지, 송인서, 신혜리, 홍성민 동문의 'Red Light'는 '2020년 부산 청년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작이며, 강성민, 정슬빈, 김혜리, 신영민 동문의 'Hero'는 '2021 대전 비주얼 아트테크 어워즈' 대상 수상을 비롯한 국내외 영화제에서

초청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Hero'는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한 소년의 꿈과 성장기를 짚은 영상 속에서 뛰어난 영상미와 사실적 시각 효과로 담아내며 그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은 화제작입니다.

박현주, 김유진, 정승지, 전영빈, 조수민 동문의 'Slowly Feeling'은 '2021 대전 비주얼 아트테크 어워즈' 장려상 및 '2021 상상 애니메이션 & 캐릭터 페스티벌 공모전' 금상을 받았으며, 천지인, 강민진, 김가연, 김가영, 김소현, 오혜진, 한혜주 동문이 제작한 'Talk to'는 '2021 제7회 아시아대학생영화제' 본선 진출을 이룬 작품입니다.

김지민, 김우진 동문의 '세계명망 5초전' 역시 '2022 First-Time Filmmaker Sessions' Official Selection 최종후보, '2022 Clapperboard Golden Festival' Official Selection, '2022 18th Athens Digital Arts Festival' Official Selection, '2022 LINOLEUM Festival' Official Selection에 오른 수작입니다.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동문들은 현재 텍

1. First Step
2. Hero
3. Slowly Feeling
4. Talk to
5. 세계명망 5초전
6. Red Light



스터 스튜디오, 로커스, 펄어비스(PearlAbyss) 등에서 유명 영화와 게임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감독과 CG아티스트로써 현장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픽사보다
노래
신선하고,
디즈니만큼
재미있다



세계를 향하는 DSU, DSU를 향하는 세계

글로벌은 동서대학교에 존재하는 하나의 문화다. 배워서 알기 보단, 그냥 학교를 다니며 체득하게 되는 경험의 일종인 것이다. 그렇게 세계에 나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부딪히며 얻는 에너지, 언어와 문화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머리와 마음에 새겨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세계를 향한 꿈을 키우고, 세계는 동서대학교의 인재들을 원하게 된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지에서 세계를 경험하고 온 학생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이다.



SAP-USA

영어+학점+해외경험을
동시에!

SAP(Study Abroad Program)는 미국과 일본, 중국 현지 대학에서 어학과 문화체험, 학점 취득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미국 SAP는 한 학기(약 4개월)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프국제대학교(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진행된다. 영어집중학과와 현지 프로젝트 수행, 어학수업 등을 통해 영어학과 학점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미국 현지 수업료와 항공료 일부,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까지 덜 수 있다.



선배 이야기

미래에 대한 자신감 충전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18학번 홍준원

SAP(미국)합격 후에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별로 없고 '과연 내가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미국인 교수님들은 저희의 영어 실력을 이해해 주시고 말을 천천히 저희에게 맞추어서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수업은 조별활동을 통해 참여도를 높이고 게임 등을 통해서 단어를 쉽고 빠르게 외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문법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미국인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주었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학생들과 빨리 친해지고 다양한 얘기를 하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기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동서대학교 학생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서 서로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친밀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여행지를 정하여 미국 곳곳에 여행을 다니고 미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 좋았던 추억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영어회화 실력도 많이 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영어 문법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가고 재밌게 수업을 진행해주셔서 수업에 대한 흥미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미국 SAP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하고 스스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SAP-Global: UN 프로젝트

해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



2022년 1학기 미국 자매대학인 Saint Mary's University에 파견된 10명의 학생들은 현지 수업료, 기숙사비, 식비, 항공료 등의 장학 혜택을 받으며, 집중영어프로그램(Intensive English Program)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만을 위한 UN프로젝트를 진행했다. UN프로젝트는 파견 학생 10명이 'How to change the World by supporting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2030'이라는 주제에 대해 꾸준한 학습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유엔 경진대회에서 발표를 하는 프로젝트이다. 내부 선발 과정을 통해 10명의 학생 중 5명의 학생들은 4월 29일 UN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관련한 발표를 하였다.'

학생들 발표주제

- 서유진: Sustainable Tourism(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양운정: Seven-day Global Citizenship Challenge(Preserving environment Challenge)
- 윤하나: College Admission Scadnel(relating blockchain to Education)
- 이주영: Recycle to Live(collecting plastics)
- 김지연: For Sustainable Future(Donating used item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of the land)

선배 이야기

세계 시민으로서 나의 역할과 방향을 알게 된 기회

사회복지학과 19학번 양운정

평소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인 환경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기에 UN이 2030년까지 추구하는 개발목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AP-Global은 제가 세상에 대한 관점을 넓히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도전하게 되었고, UN에서 발표까지 하게 되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발표주제를 'Seven-day Global Citizen Challenge(Preserving environment Challenge)로 잡았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걱정도 많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걸 즐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기에 이걸 낭비하지 않기 위해 도전해보고 싶은 것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미래를 걱정하기 보단 하루하루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혼자 맞서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험할수록 문제를 풀아가는 지혜가 생겼고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먼 미래를 고민하기 보단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때 오히려 내 미래가 열린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UN이 2030년까지 지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며 SDGs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사회복지학 전공자로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정의하고 고민해보며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어떻게 삶 속에서 이 문제를 실천해야 할지 접근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한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세계 시민으로서 '나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았지만 이 경험은 제 자존감과 자기 확신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 같아 정말 후회 없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SP

문화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여름방학에도 글로벌 프로그램을 놓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ASP(Asia Summer Program)를 운영 중이다. ASP는 여름방학 동안 아시아 각국의 자매대학 학생들이 함께 모여 아시아의 문화와 교육을 체험하고, 그들과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시아 자매대학들이 돌아가며 개최하게 되는 ASP! 작년 ASP의 호스트 대학교는 말레이시아 UniMAP이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은 ZOOM 등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학생들은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 충분히 배우고, 소통하며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



선배 이야기

문화가 가진 소통의 힘을 배운 가치 있는 시간

국제학과 / International Studies학과 20학번 정유진

대학생이 되면서 함께 시작된 코로나19는 여러 활동에 제약을 주었습니다. 제일 기대하고 바랐던 해외 활동엔 제약이 생겼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하던 찰나에 저는 '2021 Asia Summer Program' 참가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대학들과 하계방학동안 문화 및 교육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이었고 망설임 없이 바로 지원했습니다.

2021년 호스트 대학교는 말레이시아 UniMAP였고 2주간 2개의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강좌는 'Introduction to Cross-Cultural Management'와 'Thinking Skills'였습니다. ASP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호스트 대학의 학생들이었고 제가 잘 모르던 말레이시아의 문화는 물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서로 교류하며 2주간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수업시간 외에도 문화 활동 시간을 진행하여 2주간 정말 ASP에 집중하고 녹아들 수 있게 호스트 대학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후 말레이시아에 큰 관심이 생겼고 직접 전공 공부에 이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SNS를 활용하여 수업했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문화와 트렌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나 또한 많이 나누면서 한국의 국제적 평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친구들과 함께 한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조별활동, 한국어를 잘 알던 친구들이 많아서 놀라웠다.

캠퍼스아시아학과 이동캠퍼스

일본과 중국캠퍼스에서 공부하며 키우는 동아시아 리더의 꿈

이동캠퍼스는 캠퍼스아시아학과 2~3학년 학생들이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중국 광둥외어외무대학 캠퍼스를 2년간 순회하며 학점을 인정받는 국내 유일의 한일·중 교육부 공동주관 교육 프로그램이다. 4년간의 수업료 전액 또는 반액 지원은 물론, 현지 파견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액 항공료, 격리비,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이동캠퍼스 현지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지만, 올해 다시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난 4월 20일 학생들은 일본 리쓰메이칸대학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선배 이야기

책에서 배운 내용들을 직접 겪으며 새롭게 배우다

2학년 이세현



1학년 때 코로나19로 현지 유학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그래도 온라인으로 일본과 중국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에서 선배들이 한국에 유학을 오고, 직접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나도 꼭 일본과 중국에 가서 직접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모두의 희망과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일본에 갈 기회가 다시 열렸고, 올해 4월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입국 격리 때문에 대면 수업은 조금 늦게 시작되었지만, 격리 중에도 현지에서 다 함께 길을 찾거나, 간판을 읽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밥을 사러 갈 때 편의점과 마트 직원 분들과 대화하면서 1학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 책에서 본 문화나 예절 등을 여기에 와서 직접 겪어보니 책에서만 볼 땐 잘 느껴지지 않던 한국과의 문화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어떤 일들이 생길 진 모르겠지만, 너무 오고 싶었던 나라에서 직접 공부할 생각을 하니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지난 학기 한국에 왔던 일본, 중국 선배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행운이라 생각하고 한 학기를 정말 알차게 보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다시 못 올 소중한 기회

3학년 배정한



저는 2019년 2학기 일본 리쓰메이칸대학에서 수업을 들었지만,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유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도 2년 뒤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전역을 하고 나서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았고, 유학 가능성은 불확실했지만 복학을 했습니다. 4월 6일 일본 학기는 시작되었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기 시작한 지 며칠 뒤, 일본 입국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본 입국이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교수님들께서도 좋아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온라인으로만 보던 교수님들을 실제로 뵙고 수업을 듣는다는 생각, 일본인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 2년 만에 다시 가는 리쓰메이칸대학 캠퍼스 등 모든 것들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타기 전까지도 상황은 나이지 않았고, '만약 내가 코로나19에 걸렸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함께 가는 친구들 모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다시 얻게 된 유학의 길을 허투루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쉽지 않게 주어진 기회만큼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많은 걸 얻어갈 것입니다.

기대하던 일본으로!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자!

3학년 안도희



중국과 일본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자 입학했고,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2학년과 3학년 때 가는 유학이었습니다. 많은 선배와 외국 친구들에게 듣는 외국 생활은 힘든 점도 많지만,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기에,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학년 유학이 연기되자 아쉬움이 컸습니다. 집에서 ZOOM으로 듣는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흥미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3학년이 된 올해도 '혹시 유학을 가지 못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일본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위해 서류 준비와 물건 등을 정리하는 기간에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서 걱정이 컸습니다. 일본을 가기 위해선 출국 72시간 전에 검사한 음성확인증 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PCR 검사만 2번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음성확인증 서류를 받았습니다. 비행 하루 전날까지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급급해서 일본에 간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비행기를 타고서야 조금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격리하는 기간에 주변을 구경하고 일본어로 주문하고 생활하는 문화들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모든 문화가 새롭고 많은 친구를 만날 생각에 기대가 컸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유학 생활만큼 빨리 얻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천천히 많은 문화와 생활에 대해서 경험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AI+콘텐츠 융합기술의 선두주자 가상 아이돌을 넘어 가상세계 구축을 꿈꾸다



'사랑', '윈드', '버니', '스노우' 지구 밖에서 온 4명의 아이돌

가상 아이돌 제작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2021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혁신인재 양성사업' 플랫폼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SW융합센터는 22명의 교육생, 그래픽 AI 전문기업인 ㈜펄스나인과 합작해 6개월 동안 AI, 3D 컴퓨터그래픽(CG), 공연 뮤지컬, 방송영상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해 실사와 같은 4명의 아이돌을 제작하고, 인공지능이 작사·작곡한 곡으로 가상 아이돌이 공연하도록 했다.

아이돌은 '사랑', '윈드', '버니', '스노우'의 4가지 콘셉트로 제작됐다. 사랑이는 펄스나인의 캐릭터로 사랑스러운 아이돌이라는 콘셉트다. 윈드는 바람의 여신, 버니는 불의 여신, 스노우는 눈의 여왕이다. 이들은 지구 밖 외계에서 활동하는 아이들로, 어느 날 지구에서 아이돌 그룹 '위드유'가 새 멤버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지구 오디션에 4명의 아이돌이 참가한다는 설정을 갖고 있다.

동서대학교는 2021년 11월 29일 이 가상 아이돌과 실제 배우와의 혼합 메타버스 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당시 실제 사람과 가상 아이돌이 동시에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무대 앞쪽에 홀로그램 막을 세우고, 여기에 가상 아이돌을 띄운 후에 바로 뒤 무대에서 실제 사람이 공연을 해 마치 바로 옆에서 함께 공연하는 듯한 느낌을 준 것이다.

AI World 2022: Tech & Future에 참가한 동서대학교 지난 6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한전자공학회, 파이낸셜스 주관으로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의 만남'을 주제로 한 'AI World 2022: Tech & Future'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SW중심대학사업단은 가상 아이돌의 공연을 선보이는 동시에, 'AI, 가상 아이돌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AI기술로 아이돌을 제작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동서대학교의 AI기술력과 학생들의 수준을 대외에 알렸다.

최근 국내 주요 게임기업부터 연예기획사, 가전회사, 유통기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버추얼 인플루언서', '디지털 휴먼' 등으로 불리는 가상인간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학은 이러한 최첨단 기술 개발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 동서대학교는 2021년 11월, 우리나라 대학 중 처음으로 기업과 협력해 AI로 가상 아이돌을 제작하고 공연까지 선보이며, 기술 개발의 허브가 되기 위한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



스노우 SNOW



버니 BUNNY



윈드 WIND

사랑 OhSaRang



아이돌의 모습부터 노래까지 모두 인공지능으로 제작

최대한 사람과 가까운 모습의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 풀바디 스캐닝, AI고 화질 작업, 3차원 모델링 출력, 얼굴과 페이스 구형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다. 먼저 실제 모델을 3D 스캔하고,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해상도로 업스케일링 했다. 본 데이터를 활용해 사람에 가까운 모습과 피부 재질을 구현했고, 아이돌의 의상을 만들고 입혀서 언리얼이라는 실시간 엔진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의 움직임도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360도 풀바디 스캔을 접목해 추출한 다음 적용해 생생함을 더했다.

가상 아이돌이 부른 노래 역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 만들었다. 곡은 4명의 아이돌 각각의 콘셉트와 유사한 가사와 곡을 수집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윈드는 콘셉트에 맞게 '희망', '사랑', '바람' 등의 키워드를 뽑고 여기에 맞는 가사를 찾아 훈련해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곡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곡 138곡을 수집한 뒤, 인공지능이 학습해 만들어낸 결과다. 가상 아이돌 제작의 모든 과정에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해 가상 아이돌의 질적 수준을 높였고, 제작시간과 인력도 절감할 수 있었다. 동서대학교는 계속해서 가상 아이돌 제작을 비롯해 이들이 활동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올해 단기적 목표는 가상 아이돌 제작을 통해 쌓은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100% CG를 활용해 공포 드라마를 만드는 실습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MINI INTERVIEW

가상 휴먼 제작 기술에 대한 교육과정 더욱 넓힐 것

SW중심대학사업단 SW융합센터장 김기홍 교수

"전 세계적으로 가상 휴먼 제작 기술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2D 즉, 딥페이크를 활용한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방법인데, 이는 인공지능이 학습한 얼굴로 기존의 얼굴을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3D로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딥페이크 방식은 사실적인 모습을 구현하지만 얼굴을 45도 이상 화면 정면에서 방향을 바꾸면 갑자기 질이 떨어지거나 구현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후자인 3D 자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얼굴을 향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국내 수준은 이미 상당하며, 앞으로의 시장은 메타버스산업의 발전에 따라 더욱 발전되고, 배우와 MC, 모델, 가수 등 여러 콘텐츠 분야 등 그 범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서대학교의 가상 휴먼제작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상 휴먼 제작기술의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동서대학교 출신 첫 국가대표 이영은 동문 우리나라 포물러카이트보드 여제 동서대학교 출신 첫 국가대표가 되다!

지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충남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제15회 대한요트협회장배 전국 요트대회*가 열렸다. 올해 9월에 있을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겸한 대회였다. 이번 대회는 딩기부터 윈드서핑, 스키프, 카이트보딩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의 실력자들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실력자들 중에 단연 눈에 띈 여 선수가 있다. 바로 '포물러카이트보드' 여자부 대회 1등을 차지하며 포물러카이트보드 국가대표가 된 '이영은 선수(체육학과, 12학번)'다.



이영은 선수
수년간 전국카이트보딩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2018 Thailand Kiteboarding Championships 프리스타일에서 아시아 챔피언에 올랐다. 또한 'MBC뉴스', 'KBS전국을 달린다', '배틀트립' 등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미 마니아층에서는 유명세를 타고 있던 선수이기도 하다.

포물러카이트보드라는 종목은 다소 생소하게 들립니다.

어떤 스포츠인가요?

'카이트서핑', '카이트보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포물러카이트는 카이트보딩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카이트보딩이라 하면 카이트(연)가 튜브형식으로 공기가 주입된 카이트입니다. 하지만 포물러카이트는 패러글라이딩 기체처럼 생겼으며, 보드는 포일 보드라고 해서 일반 보드랑은 다르게 보드 밑에 마스트와 윙(날개)이 있어 보드는 물에 뜨고 물속에서 윙을 이용해 양력으로 추진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3~4m/s의 약한 바람에도 경기가 가능한 전문 선수들의 레이스 종목입니다. 요트 종목 중 속력이 가장 빠르죠. 우리나라에선 아직 비인기 종목이지만 미국·유럽권에서는 매년 대회가 개최될 정도로 주류 스포츠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제야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곧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큰 스포츠입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대학 시절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학년 때 김성겸 교수님께서 카이트보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강습비를 지원 받아 시작했고 배우다 보니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는 사실 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교수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올림픽 정식종목 가능성이 높아보였던 2010년부터 장비를 구입해 꾸준히 학생들을 참여시키며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교수님의 지원과 격려에 힘을 얻어 저 역시 자비를 모아 해외 훈련도 다니며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동서대학교와 김성겸 교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제가 이런 스포츠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경기 중인 이영은 선수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포물러카이트보드 여자부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이루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포물러카이트보드는 올해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신설 정식종목입니다. 신설 종목에 첫 번째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기에 저에게는 더욱 뜻깊은 대회가 될 것 같고, 반드시 금메달을 획득해서 국내 해양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열리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활약할 수 있도록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에도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라 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모교와 부산요트협회, 한국카이트보딩협회, 다대포해양레포츠센터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기억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스포츠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웨이크보드나 수상스키처럼 동력을 이용해 배가 이끌어 주는 곳으로만 갈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무동력으로 바람을 이용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동적 스포츠라는 점이 가장 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바람에도 속도를 내고 파도를 타면서 하늘 위로 점프할 때 느낄 수 있는 짜릿한 기분도, 이 스포츠를 계속하게 되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입학 후, 국가대표라는 달라진 인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영은 동문처럼 졸업 후 달라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구간도 당연히 올 겁니다. 저도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목표를 갖고 훈련에 임하면서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참고 목표를 향해 가는 의지로 이겨낸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의지, 생각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념을 갖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15회 '대한요트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전' 1위 시상식

Goodnight mommy
Pillows for the deaf parents

(Background)
Have you ever experienced a terrible situation in which you can't hear the cries of my children in an emergency situation because you're deep in sleep? Deaf parents exposed to these terrible situations fall asleep in anxiety every night. Can't you make them feel comfortable at least while sleeping?

(Solution)
Recognize the child's crying and give a signal other than sound to deaf parents. Because of the vibration of the pillow, deaf parents can easily see the situation that the child is crying while sleeping and cope quickly.

(Process)

1. The sensor detects the child's crying (78 db or more)
2. The sensor that detects this sends a signal
3. The pillow that received the signal vibrates

(Enforcement effect)

Deep Sleep Section
Number of sleep cycles
Number of waking up
Number of crying call
Sleep (The number of waking up decrease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sleep)

DSU인들의 미래, 연일 상한가 기록 중 공모전 수상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다!

공모전의 불패신화는 올해도 계속됐다. 불패신화의 원동력은 미래형 교육과 꿈의 상한선을 높이고자 하는 학생들의 성실한 노력 덕분이다. 다양한 공모전 참여로 이 세상에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 학생들의 2022년 상반기 성과들을 되돌아본다.

The award
winning
works of D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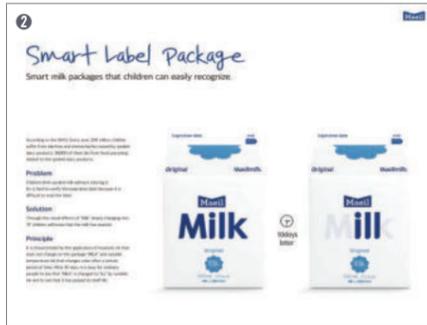
국제광고제를 휩쓴, 정복자 DSU 클리오 어워즈와 스위스 몽트뢰 골든 어워드 수상 쾌거

작년 세계 3대 광고제를 석권했던 학생들이 올해 국제광고제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광고공모전 강자, 동서대의 명성을 고스란히 이어갔다. 올해 4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클리오 어워즈 (CLIO AWARDS)'와 '스위스 몽트뢰 골든 어워드 (GOLDEN AWARD OF MONTREUX)'에서 연이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칸 국제광고제 및 뉴욕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클리오 어워즈에서는 은상 2팀(Silver Award), 동상 1팀(Bronze Award), 쇼츠리스트 1팀(Shortlist)이 수상했다. 은상에는 정유성, 이홍, 하은별, 강동호, 방승연 학생의 'Smelly Belt'와 이영준, 박준혁, 이서영, 하은별, 조동하 학생의 'Smart Label Package'가, 동상에는 김대엽, 김유진, 강동호, 임혜정 학생의 'Fake Boss'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재희, 안대원, 이찬영, 나우빈 학생의 'Touching Badge'는 쇼츠

리스트상을 받았다. 이번 클리오 어워즈에서 수상한 전 세계 대학생 수상작은 27개로, 그중 4개가 학생들의 작품이다. 클리오 어워즈에 이어 스위스 몽트뢰 골든 어워드에서는 2팀이 Winner를 수상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전 세계 대학생 수상작 국가는 한국,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브라질 6개국에 불과하고 총 수상작품은 24점, 이 중 2작품이 우리 학생이 제작한 광고로 동서대학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게 된 것이다. 광고Design부분에는 안치현, 이지은, 강동호, 박원배, 최민성 학생의 'LG - Goodnight Mommy'가 수상했으며, 광고Digital/Social부분에서는 김대엽, 김유진, 박원배, 이연주, 강동호 학생의 'NETFLIX'가 Winner로 선정됐다. 스위스 몽트뢰 골든 어워드는 1989년부터 시작된 유럽 최초의 국제 광고 및 멀티미디어 대회다. 모든 수상자는 스위스 및 국제 랭킹 목록

에 포함되며 국제 보도 자료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홍보되고, Talent Award를 플랫폼으로 사용하여 주요 국제 전문가에게 자신의 작업을 전시하게 된다. 두 국제 광고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모두 광고홍보학과 류도상 교수와 소프트웨어학과 문미경 교수가 지도하는 융합교과목인 '아이디어선용합실습' 교과목의 결과물이다. 그동안 '아이디어선용합실습' 교과목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Best of the Best 수상과 함께 총 16개 Winner 수상, 21년 클리오 어워즈 은상 및 Shortlist 수상, 뉴욕 페스티벌 국제 광고제에서 4개의 Winner 수상, 칸 광고제 Winner 수상 등 국내 대학 중 최대의 국제공모전 수상실적을 보임으로써 특성화분야의 뛰어난 역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수상작 소개



- 1 Smelly Belt
- 2 Smart Label Package
- 3 Fake Boss
- 4 Touching Badge



클리오 어워즈

Smelly Belt (Experience / Activation 부분 은상)

매년 만 3천여 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이 중 25% 정도가 조난사고라고 한다. 조난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인간보다 만 배 이상 후각이 발달한 구조견을 보내지만 55%의 조난자들은 구조견들에게 발견되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한다. 이에 실종자들을 위한 '냄새 나는 벨트'를 제안했다. 벨트의 버클 안에는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물체가 담겨져 있어서 조난 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냄새는 스킵크가 분비하는 '티올'이라는 액체로 만든 것으로 한번 버클을 열면 한 달여 동안 지속되고 1km 밖까지 냄새를 풍긴다.

Smart Label Package (Product / Innovation 부분 은상)

2021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Winner 수상작으로서, Winner 수상작 중 1%에 불과한 수려한 'Best of Best'에도 선정된 바 있는 작품이다. 학생들은 아이들이 상한 우유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스마트 라벨 패키지'를 고안해 냈다. 아이들은 유통기한이라는 개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변온 잉크를 도포해 만든 스마트 라벨 우유팩지는 유통기한인 10일 지나면 'Milk'가 '!'로 변하여 아이들이 상한 우유를 마시지 않도록 도와준다.

Fake Boss (Medium / Innovation 부분 동상)

코로나19로 늘어난 재택근무. 하지만 아무리 재택근무라도 정장을 차려입고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온라인 미팅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Fake Boss라는 앱을 개발했다. 얼굴을 바꿔주는 딥페이크 기술처럼, 옷을 바꿔주는 페이크 보스 기술을 적용한다. 이 앱을 클릭하면 카메라가 사용자의 신체 사이즈를 인식하게 되고 사용자는 보스의 버츄얼 정장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입으면 된다. 만약 실제로 이 제품을 구입하고 싶을 경우엔 하단 보스 사이트를 클릭해서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 했다.

Touching Badge (Medium / Corporate 부분 Shortlist)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세계에는 2억 6천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살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주변의 도움 없이 옷을 사고,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옷의 색을 기억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이에 학생들은 시각장애인들이 옷 색깔을 구별할 수 있게 고안된 배지를 제안했다. 컬러 배지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옷을 고르고 매치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배지는 만지면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게 제작했으며 컬러의 이니셜도 만질 수 있게 부착해 컬러 간 혼동을 줄였다.



수상소감

이홍(광고홍보학과)

"팀원들과 학기를 넘어 방학 중에도 교수님과 같이 피드백 받으면서 작업하고 결과를 제작에 많은 시간을 쏟았었는데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게 수상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박준혁(소프트웨어학과)

"작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Best of the Best 수상으로 독일에 수상식 다녀온 지가 엇그제인데 세계 최고의 광고대회에서 또 하나의 큰 수상을 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특별히 지도해주신 문미경 교수님, 류도상 교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김유진(광고홍보학과)

"클리오 어워즈에서 수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한 학기동안 열심히 준비한 결과물이 이렇게 큰 규모의 광고제에서 수상하여 뿌듯합니다. 함께 작업했던 팀원들, 꼼꼼히 마지막까지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채희(광고홍보학과)

"클리오 어워즈를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경험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조원들과 함께 몇 달 간 고생하며 만들어낸 결과라 정말 뿌듯하고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솔루션이 보편화되어 모두가 좋은 세상을 누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치현(광고홍보학과)

"팀원이 하나가 되어 머리를 맞대는 경험은 분명 우리에게 큰 의미로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힘내준 팀원에게,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주신 교수님과 학교에게 큰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강동호(디자인대학)

"팀원들과 다 같이 공들여서 준비한 작품이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하게 되어서 뿌듯합니다. 방학 중에도 피드백을 아끼지 않고 좋은 작업을 하기 위해 고생한 멋진 팀원들과 지도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스위스 몽트뢰 골든 어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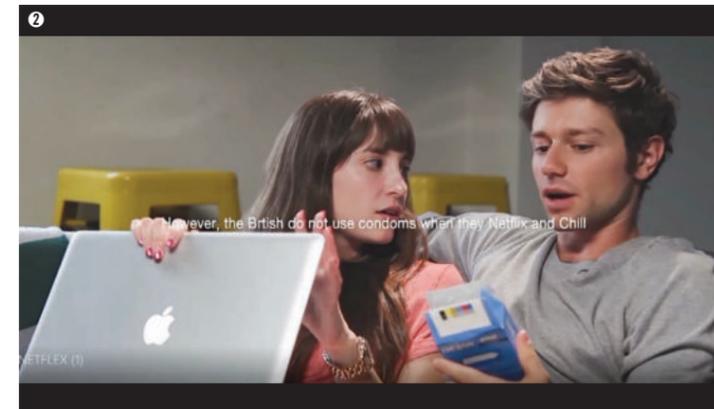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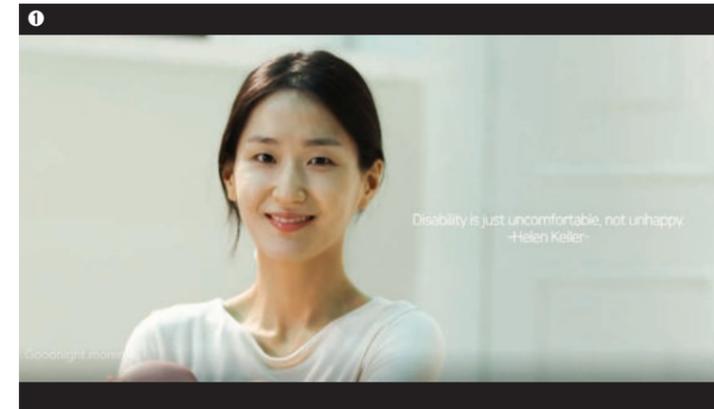
LG - Goodnight Mommy (Winner 수상)

청각장애인 부모들은 자녀의 육아에 있어 심각한 수면장애를 가진다. 이는 자는 동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며, 이는 심각한 수면 장애를 야기한다. 학생들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인식해 자고 있는 청각장애인 부모에게 신호를 줄 수 있는 진동 베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NETFLIX (Winner 수상)

영국인들은 자막 읽기의 불편함 등으로 넷플릭스 비영어권 콘텐츠를 즐기지 않는다. 또한 콘돔 구매에 적극적이지 않아 피임률이 낮다. 이들을 대상으로 넷플릭스와 듀렉스의 협업을 제안했다. 제품 외부의 비영어권 콘텐츠 스토리 라인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구매 후에는 박스 내부의 QR코드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비영어권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성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 1 LG - Goodnight Mommy
- 2 NETFLIX



2 Oh My Goraesa! 광고홍보학과 강소연, 고래사어묵 공모전 은상 수상

어묵의 도시라고 불려도 될 만큼 수많은 어묵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부산. 치열한 어묵 전쟁 속에서 '고래사 어묵'은 자사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매년 '대학생 광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광고홍보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강소연 학생은 올해 열린 고래사어묵 광고 공모전에서 1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은상을 수상해 대외에 이름을 알렸다. 수상작 'Oh My Goraesa'는 1차 기획서 심사와 2차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이다.

Oh My Goraesa는 직장, 학업 등 일상의 스트레스를 고래사어묵으로 날려버린다는 콘셉트로 제작됐다. '갑소사, 세상에'라고 번역되는 'Oh My God'은 황당하거나 놀랐을 때, 화날 때, 즐거울 때 등 다양한 경우에 사용하는 감탄사다. 우리는 일상에서 저절로 'Oh My God'을 외치게 되는 황당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고래사어묵의 제품과 함께 라면 'Oh My God'은 환희의 감탄사로 바뀌고 자연스레 'Oh My Goraesa!'를 외치게 되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상소감

“부산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고래사 어묵의 공모전에 참가해 은상을 수상하여 의미있었고 팀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아이디어를 낸 과정이 값진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수업을 통해 성장한 나 그리고 함께 팀을 이룬 선배님들과의 시너지가 수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주었고 앞으로도 광고인이 되기 위한 실력과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 영화 Chinese Herb 한중뉴미디어대학 Zhou Ying 외 5명 학생 해외영화제에서 수상



한중뉴미디어대학 영화학전공 학생 작품 중 동서대학교에서 수확하고 만든 작품으로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첫 작품이 탄생했다. 영화학전공 2019학번 Zhou Ying 학생 외 5명 학생(Zheng Chuhui, Zhou Baiyu, Luo Jiayi, Zhou Wei, Fu Di)이 함께 제작한 'Chinese Herb'라는 작품이다.

이 영화는 제12회 인도 PUNE Short Film Festival에서 선정된 데 이어, 이스라엘 Near Nazareth Festival에서 Semi-Finalist에 오르고 현재 Finalist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서울 여성영화제에 출품하고 심사 대기 중이며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출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위 6명 학생들이 2021년에 본교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 International College 조성훈 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 스스로 기획, 촬영, 편집 등에 참여하여 제작한 작품으로, 2021년 12월 본교 International College에서 개최한 Digital Arts Show에서도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던 작품이다.



12th
PUNE Short Film Festival
2022



수상소감

지도교수 조성훈(International College)

“저는 학생들에게 방향만 제시 했을 뿐 모든 과정은 학생들 스스로가 진행하고 만든 성과입니다. 영화제 수상을 목표로 만든 작품은 아니었지만 영화 전공 특성상 매우 큰 의미가 있고, 학생들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이기도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혹은 앞으로 입학할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차곡차곡 담아 당신에게 전합니다



덕분입니다

동서대학교는 '타인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면서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이라는 이념 위에 설립된 대학이다.

이러한 건학정신을 뿌리로 오늘도 우리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함께 걸어 나가고 있다.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에게 내민 사랑의 손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침공하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5개월이 지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전쟁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간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동서대 유학생 및 입국 예정 학생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동서대학교는 1년간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4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1학기에는 International College 게임전공 이조토브 막심(IZOTOV MAKSYM) 학생과 보드나 디아나 아나스타샤(BODNAR DIANA ANASTASIIA)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2학기에 유학 예정인 2명의 학생에게도 동일 조건의 장학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조토브 막심 학생은 “모든 도움과 배려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다.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에 계신 저희 부모님도 이 소식을 듣고 놀라셨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다”고 말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타국에서 전쟁의 아픔을 함께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에게 학업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최선의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격려했다.

현재 동서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우크라이나 학생은 총 5명이다. 그중 3명은 정부초청 장학생(어학과정)으로 학비, 생활비 등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으며, 올해 수혜 대상 4명은 앞으로 1년간 등록금 및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교목실,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할

'건학이념실천 장학생' 선발

교목실은 5월 25일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한 '진리, 창조, 봉사'의 건학이념을 몸소 실천하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건학이념실천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학원복음화센터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김정선 총괄부총장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문과 재능기부를 통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건학이념실천 장학생으로 선발된 9명의 학생 중 김형경 학생(간호학과)은 의료수어통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 봉사 계획과 준비과정 및 소감을 자세히 기록하여 최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김형경 씨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가치 있고 올바른 일임을 인정받는 것 같아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고, 꾸준히 노력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 앞으로도 주변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제가 되기를 또 한번 다짐해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DSU!



공부와 더위에 지친 학생들에게

시원하게~ 한 톱 싹 장제국 총장

기말고사 준비로 지친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업에 더욱더 열중할 수 있도록 '총장이 쓴다'라는 슬로건의 캄캄 이벤트를 진행했다.

6월 10일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75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해 장제국 총장은 전문 셰프를 학생식당에 초청하여 셰프가 만든 중식요리와 커피를 제공하고, 학생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마친 이연주(광고홍보학과 4년) 학생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맛있는 식사와 학교생활 중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신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하며 훈훈한 분위기가 오갔다.

장제국 총장은 “이번 행사가 기말고사 준비로 지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며 좋겠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폭염 등으로 정신없던 올해 1학기도 구성원 모두가 단합해 잘 이겨냈다. 이어 2학기에도 학생들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안전을 기하고, 구성원 간 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행보를 펼칠 계획이다.



장제국 총장 동계 교직원 연수회에서 대학발전 위한 7대 주요전략 제시

2022 7가지 대학발전 주요 전략

- 1. 교육운영체제혁신 안착
- 2. 교육내용의 혁신
- 3. 지명도 향상
- 4. 특성화분야 명품화
- 5. 직무에 충실한 한 분야 지속적 성장 추구
- 6. 서류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분야 전략적 접근 추구
- 7. 입학지원 변화요인에 영향을 받은 분야의 혁신



'2022년도 동계 교직원 연수회'가 2월 16일 소향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연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주요 보직자 등 소수인원만이 참석하였으며, 나머지 교직원들은 ZOOM과 DSU메타버스, 유튜브생중계 등 다양한 온라인을 통해

참석하였다. 장제국 총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워지는 대학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세계 3대 국제광고제 석권과 교육운영체제혁신안의 안착, 아시아 5,984개 대학 중 QS아시아랭킹 500위권에 오른 것 등 2021년의 성과를 되새기고, 구

성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또한 류도상, 문미경, 김민지, 김기홍 교수에게 각각 교육, 연구, 산학 부문 우수교원상을 수여하였으며, 이어서 2022년 대학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 7가지를 제시하여,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동서학원 설립 57주년 감사예배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 57주년 감사예배가 경남정보대 미래관 역사기념관에서 열렸다. 감사예배에는 박동순 이사장과 장제원 국회의원, 동서학원 3개 대학 총장단, 동서학원 자문목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57주년 기념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김호규 목사의 설교, 최홍준 호산나교회 원로 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박동순 이사장은 "57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어 이 척박한 냉정골을 일구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따뜻하게 닦아주셨다. 오늘날의 아름다운 민석동산으로 이끌고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신 사도바울의 말씀이 이 시대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이야기하며 오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21학년도 학위수여식

제27회 학위수여식이 2월 18일 소향아트홀에서 거행되었다. 올해 졸업식 역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많은 인원이 비대면 참석을 미리 신청하여 집에서 택배로 전달받은 졸업복을 입고 250명의 졸업생이 ZOOM을 통해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박사학위 49명, 석사학위 82명, 학사학위 1,175명을 배출한 이날 졸업식은 미리 학과별로 후배들이 선배들을 위해 제작한 송별영상 릴레이와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졸업하는 선배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등 동서인들의 뜨거운 정을 느낄 수 있었다.



LINC 3.0 수요맞춤성장형 선정

동서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수요맞춤성장형)'에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메타기술기반 문화콘텐츠 분야의 산학연협력'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2022년부터 6년간 최소 240억 원의 국고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그간 LINC+사업으로 구축한 우수한 산학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관련 신기술과 콘텐츠 특화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사업화로 미래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대학으로 성장해 한 단계 더 나갈 계획이다.



2022학년도 입학식

제31회 입학식이 2월 25일 소향아트홀에서 거행되었다. 입학식에는 300명의 오프라인 참석자와 온라인 ZOOM을 통한 비대면 참석자 1,500명이 참석하였다. 동서대학교 출신 임현정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작된 입학식에서는 교직원, 임원택 감독 등이 축하 영상을 통해 신입생들을 환영하였고, 실시간 현장 중계, 오프라인 행사, 경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이날 신입생 2,027명은 "학교의 제반 학칙을 준수하며 재학 중 배움과 수련에 힘쓰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라고 선서했다.



2022 학부모 초청 총장 간담회

5월 19일 개교 30주년 기념 '2022년 학부모 초청 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리 참석을 신청한 46명의 학부모들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는 '웰컴 티 타임', '미래형 강의실 소개', '동서대의 성과&졸업생 성공스토리 안내', '학부모 질의응답', '취업케어더링' 순으로 이어졌다. 유튜브를 통해 학교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다양한 첨단 시설과 해외 캠퍼스, 학교와 학생들의 성과 등을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였으며 참석학부모들도 궁금했던 사항들을 직접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형준 시장 참여, 오픈캠퍼스 미팅 개최

문화콘텐츠 도시 부산을 위한 자·산·학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오픈캠퍼스 미팅'이 3월 24일 동서대에서 개최되었다. 오픈캠퍼스 미팅은 박형준 부산시 시장이 직접 부산지역 대학을 방문하여 자·산·학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토론행사다. 이날 미팅에는 박형준 시장과 장제국 총장, KNN 이오상 사장 등이 참석해 '문화콘텐츠 도시 부산을 위한 자·산·학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영상산업 발전 계획, 지역채널과의 상생 협력 방안,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확충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펼쳤다.



제주지역 BIG5 호텔&리조트분야 채용박람회

4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제주지역 BIG5 호텔&리조트 분야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채용박람회에는 CJ대한통운(주)클럽나인브릿지, SK핀크스(주),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 (주)호텔롯데 롯데리조트, (주)호텔신라제주가 참가하였다. 27일에는 주례와 센터캠퍼스에서 채용설명회가, 28일에는 스투던트플라자에서 현장면접이 진행되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학생들은 7~8월(2개월), 7~12월(6개월) 현장실습에 참가하고 매월 200여만 원의 현장실습비와 기숙사, 식비 등을 지원받는다.

DSU TODAY



IPP형 일학습병행사업 성과보고회

IPP형 일학습병행사업단은 2월 15일 부산파라디이스호텔에서 '2021년도 IPP형 일학습병행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IPP형 일학습병행제도는 현장 중심의 산학협력 교육모델로서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과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을 결합한 제도이다. 이날 행사에는 2021년 참가기업 및 2022년 신규기업 관계자, 우수참가자 등 7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도가 높은 10개 기업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137명 사업 참가자 중 13명의 우수참가자를 선정하여 상장과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제27회 동서디자인미술실기대회에 전국 고교생 880명 참가

디자인대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6월 4일 디자인홀, 뉴밀레니엄 빌딩 등에서 제27회 동서디자인미술실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전국 고교생 880명이 참가하여 경합을 벌인 끝에 기초디자인 분야에 출품한 성신고등학교 졸업생 박다희 학생이 전체 참가 부분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금상 1명, 은상 4명, 동상 12명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대회 특전으로 대상에게는 4년간 등록금 면제에 실기점수 10% 가산을, 금상은 2년간 등록금 면제에 실기점수 10% 가산 혜택이 주어진다.



디자인대학,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일본 큐슈대학과 공동으로 'SDGs 디자인 국제공모전' 개최

디자인대학과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는 일본 큐슈대학 대학원 예술공학연구원, SDGs Design Unit과 함께 '제4회 SDGs 디자인국제공모전 2022'를 공동 개최한다. 사회를 바꿀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SDGs 디자인공모전의 올해 테마는 '질 높은 교육'이다. 공모는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시상식은 11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SDGs 디자인국제공모전 2022'의 참가에 관한 세부 요강은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2022년 신입생 캠퍼스 투어

SW중심대학사업단은 4월 13일 '2022년 신입생들을 위한 캠퍼스 투어'를 개최하였다. 이날 신입생 캠퍼스 투어에 참여한 총 284명의 신입생들은 캠퍼스 내 SW교육시설(AI+X연구소, 모바일 포렌식 센터)을 탐방하고 21세기형 첨단 도서관인 민석도서관의 IT존, U존, 열람실, 스튜디오플라자 창의적생활코딩 우수 수강 수기 전시회, 학생들이 대면으로 듣게 될 채플 강당 등 주요 시설을 돌아보았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캠퍼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캠퍼스 투어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Final Demo day

동서대학교와 (사)단디벤처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Final Demoday'가 2월 16일 부산 상상마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초기창업 기업에 투자유치를 위한 IR파칭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초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멘토링과 투자유치교육을 거쳐 최종 11개 스타트업이 파이널 무대에 올랐다. 발표를 마친 11개 기업 중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 기업은 실제 투자 연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NHN과 웹툰문화콘텐츠 산학협력 업무 협약

동서대학교와 NHN은 4월 1일 뉴밀레니엄관에서 K-웹툰산업을 선도할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NHN 웹툰 플랫폼 '코미코'는 한국, 일본, 대만에서 앱과 웹을 통해 서비스 중인 글로벌 웹툰&웹소설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현장실습 및 직무교육에 관한 공동 노력,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및 교류, 기타 상호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Vol. 381



부산시 미래교육원 진로진학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임권택영화연구소는 4월 5일 센텀캠퍼스 민석소극장에서 부산시 미래교육원 진로진학지원센터와 '2022 영화 진로동아리 '나의 꿈, 레디 액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부산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화 제작 체험 중심의 진로체험을 지원한다. '나의 꿈, 레디 액션'은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총 7회의 과정으로 센텀캠퍼스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는 영화과 교수들이 적극 참여해 시나리오 작성부터 영화 제작 기술, 편집 및 후반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계약학과 협약 체결

4월 28일 밀레니엄관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해 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협약에 따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클라우드융합학과'를 신설하고 올해 2학기부터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자 20명을 신입생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등록금 65%를 학생들에게 지원하며, 주말·야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학교법인 선화학원과 협약 체결

동서대학교와 학교법인 선화학원(부산컴퓨터대학교, 선화여자중학교)은 5월 12일 '교육협력 및 상호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산교육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AI·SW교육과 진로 탐색을 위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동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웨메이드와 발전기금 기부 협약 체결

동서대학교와 글로벌 게임회사 ㈜웨메이드는 위메이드 본사에서 암호화폐 위믹스(WEMIX) 발전기금 기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위메이드 측은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연구, 학술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암호화폐를 기부하였다. 위믹스 암호화폐는 SW중심대학사업단의 교육 프로그램 및 자체 개발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또한 기부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등 양측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발전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웨이브파크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웨이브파크는 4월 12일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갖고,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장제국 총장과 최삼섭 웨이브파크 대표이사, 김정선 총괄부총장, 남호수 교학부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아시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 파크인 웨이브파크의 최삼섭 대표이사는 올해 30주년을 맞은 동서대에 기업 이익을 환원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함께 전달하였다.



영화과 박범진 학생 1,200만 원 제작지원 선정

영화과에 재학 중인 박범진 학생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상반기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단편부문'에 최종 선정되었다. 상반기에 제작지원 단편부문 공모에 참여한 작품들은 총 482편이며, 엄격한 심사와 면접을 거쳐 25개의 최종 작품이 선정되었다. 그중 박범진 학생이 연출한 '슈퍼 히어로'는 야구 선수를 꿈꾸는 초등학교 '범'이 자신을 괴롭히는 동네 형들과의 야구대결에서 번번히 패하며, 복수를 꿈꾸다 자신의 롤모델인 '최동원' 선수를 직접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으로 총 1,200만 원의 제작지원을 받게 되었다.

찬란하다 미래 찬란하다 그대

내색하진 않았지만 때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마음먹은 대로 잘 될지
운동 고민과 불안으로 나날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수도 좋고 조금 창피해도 좋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테니까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지만,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실행에 옮긴다면
달라진 나의 모습을 만나지 않을까요.
오직 중요한 것은 바로 끝까지 해내는 힘입니다.

뜻을 세우고 새롭게 각오를 다진다면,
동서대학교가 당신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동서대학교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가 찬란한 것은 당신이 찬란해서입니다.

총장 **장 제국**

